

## [STEM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의 OPT 연장 추진]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현재 가장 29개월까지 허용되고 있는 STEM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 분야 졸업생들에 대한 OPT 기간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와 같은 수준인 최대 6년까지 확대하는 세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STEM OPT 연장안]

1. 미국 대학원에서 STEM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유학생들은 무려 6년까지 OPT로 취업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연장한다는 방안

STEM 전공 미국 석박사들은 우선 12개월간의 기본 OPT 2번에다가 2년씩 두 번을 연장, 최대 6년 동안 OPT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2. 학사를 STEM 분야로 전공하고 석박사는 MBA 등 다른 분야로 학위를 받을 경우 OPT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예를 들어 학사과정에서 화학을 전공한 다음 대학원은 미국 내에서 MBA(경영대학원)를 나온 유학생들은 2년을 OPT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본 12개월간의 OPT기간을 학사와 석사, 박사를 마칠 때 마다 이용할 수 있고, STEM 전공자들은 1회에 한해 연장 17개월을 합해 총 29개월까지 OPT 기간으로 부여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방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는 외국 유학생들은 졸업 후 OPT 취업 기간이 현재보다 최소 2배, 최대 2배 반을 늘어나게 된다.

## [STEM OPT의 개요]

현재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자 OPT(졸업 후 현장실습) 같은 경우는 기본 12개월 외에 17개월의 추가 기간을 받을 수 있어 총 29개월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17개월 기간은 평생 한 번이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 오퍼가 없어도 되나 OPT가 시작되면 90일 안에 취업이 되어야 한다. 12개월 중 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총 90일이다. 즉 앞에 60일을 취업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쉴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된다. STEM OPT 연장을 받은 경우 총 90일의 실업일이 허가된다.

실업일 제한 때문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는데, 취업 활동은 본인의 학업 전공과 관련만 있다면 월급을 받는 포지션은 물론 월급을 받지 않는 취업도 허가되며 자영업도 허가되므로 취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생각해도 괜찮다. 취업 시간은 주당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7개월 STEM Extension을 받기 위해서는 일할 회사가 E-verify를 마쳐야 한다. 복수 전공인 경우 STEM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으며 전공 과목이 아닌 부전공 과목으로 STEM Extension을 받을 수는 없다. 일반 OPT의 경우 OPT를 신청하고 나서 직장을 찾아도 관계 없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취업 제안이 있어야 한다. 후자는 H-1B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 취업이 가능한 첫날 (그 해 10월 1일)까지 OPT 기간을 연장해 준다.

## [STEM 전공 육성 정책의 효과]

이 전공 분야들은 미국내에 21세기에 직업 성장과 연봉 등에서 가장 각광 받는 분야로 전망되고 있다고 연방 상무부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STEM 분야 근무자들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이들 전공을 통해 공부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14개의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advanced manufacturing (첨단제조업), automotive (자동차공업), construction (건설), financial services (금융 서비스), geospatial technology (공간정보 기술), homeland security (국토 안보),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transportation (운송업), aerospace (항공우주 산업), biotechnology (생명공학), energy (에너지 공학), healthcare (의료 분야), hospitality (관광/엔터테인먼트 산업), retail (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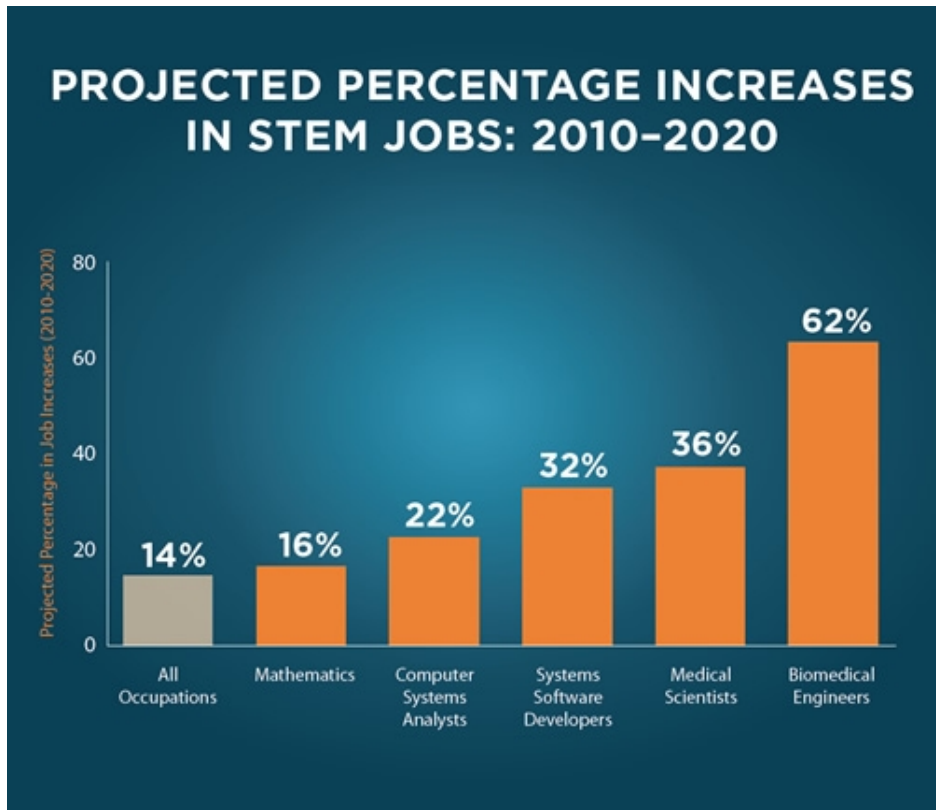
#### [의회 추진과정- January 2014]

지난해 1월 연방의회 소속 ‘ 연구기술 소위원회 ’ (Research and Technology Subcommittee)는 STEM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연방 정부는 각종 연방 부처를 통해 STEM 교육 프로그램에 3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 [의회 반응 및 전망]

이 같은 연장안을 보고받은 공화당의 찰스 글래스리 상원의원은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장관에서 서한을 보내 “GAO(의회 일반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 OPT 프로그램이 엉터리로 시행되고 있는데다 H-1B 취업비자 기간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편, 공화당 핵심 의원의 제동으로 OPT 연장기간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은 있으나 STEM 전공 미국 석박사들은 졸업 후 적어도 3~4년을 OPT로 있으면서 H-1B 취업비자와 취업 또는 창업 영주권까지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 참고:

### [STEM 전공 석·박사 학위의 절반 이상 유학생]

전미 교육통계 센터는 미국 대학에서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6%에 불과하지만 첨단 STEM 분야(과학, 기술, 공학, 수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 [미국 대학의 국가별 유학생 숫자 및 순위]

미국 대학들에 등록된 전체 유학생들은 90만명에 가깝고 그 중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은 56만 8500명이다. 중국이 27만 4500명으로 1위, 인도가 10만2500명으로 2위 그리고 한국이 6만 8000명으로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3개국 이 미국 유학을 주도하고 있다.

### [한국 유학생의 전공별 %]

비즈니스와 매니지먼트(경영 및 관리)전공자들이 17% 로 가장 많으며 이어 엔지니어링(공학)과 예술 전공자들이 각 13%, 사회과학 전공 12%로 집계됐다.

### [유학생의 석사·박사 각 전공별 %]

박사학위의 경우 엔지니어링(공학)에선 57%, 컴퓨터 정보 박사들은 53%, 수학 통계는 50%, 테크놀로지 49%를 차지하며 석사학위의 경우 법학 55%, 건설 50%, 컴퓨터 44%, 공학 43%, 수확통계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